



김 알렉산드르 막시모위치 선생.

김 알렉산드르 선생은 1911년에 원동변강 연해주 갈리닌구역 이만시 부근에 있는 아주 구부호브카 촌에서 중등급 농민 김 마씨의 차남으로 태어나시었다. 김 선생은 향초에서 초공을 마감하시고 그 향초 바를 초급공청단 체 책임서기로 1924년부터 1926년까지 일 하시었다. 농촌 청년들속에서 공청회 사업은 열 성적으로 조직 진행하여 청년들속에서 새로운 사회 주의 사상을 아주 깊이 인식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권공적 로동조직에 잘 끌기 위한 결과에 연 해주 공청동맹 중앙위원회는 김 선생을 추천그 라드시 공청 대학에 파견하여 1926년부터 1933년까지 공부를 하게 하였다. 공청대학 을 마감한 김 선생은 원동 변강 울타리에서 뎃코시 공청회에 파견되어 거기에서 원동변

광.한인 중앙 신문 "선봉신문" 편집위원회
사무국장으로서 1933년 부터 1937년 - 즉 일제에서
한인들을 강제어우할 때까지 일하시였다.

강제어우를 당하여 우르베크한에 도착한 김 선생은
기본 직업 - 신문사 일을 그만두고 포편을 잡고 일하게 되
였다. 하스켄트루 공설칙구역 볼로뜨브 골호르에 있는
호름에서 처음에는 조어교원으로 계시다가 다음 1941
년 부터 1945년에 북한에 나가실 때까지 교장으로 일
하시였다. 급속으로 북한에 도착한 김 선생은 1945-1946
사이에는 민전사령부 소련교원들의 홍역관으로, 다음
1946-1947년 사이에는 인민군 정치권관학교 교관으로
일하시였고 1947년 1950년 까지는 김일성 종대로
어 감화에서 상급교원으로 일하시였다. 1950년 동족
상잔이 시작되자 김대는 중국 만주로 후퇴하게 되니
당시 김 선생은 급속한 후속을 걸쳐 소련에 귀환하였
다. 김 선생은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제대 후속
을 받다음 가족을 따라 귀나흐한 크슬모르라 식에 가게
되였다. 여기에서 김 선생은 1971년 까지 국가 공공
주택 재흥에서 정성스럽게 일하시고 1971년에 국가
년금 보장을 받으면서 누대한 자식들과 손주들을
데리고 1992년까지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선거
하시였다. 김 선생은 일제 때 대한 전승 (태라, 조선
해방 태라, 소련군 30주년 태라, 조선인민군 군공태라 등)으로
수여 받으셨다.

12/I-2006. 하슈켄트에서 장학영